

척계광(戚繼光) 남병(南兵) 무예에 관한 고찰*

노동호**(남부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척계광이 무예를 혁신하는 과정과 기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남병무예의 실체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법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척계광은 당순지(唐順之)로부터는 『무편(武編)』을 받아 원양진법을 고안하고 장창(長槍)을 중심으로 장병기예를, 유대유(俞大猷)로부터는 『검경(劍經)』을 받아 곤법을 중심으로 단병기예를 습득했다. 이 시기 원양진과 장단검용의 기법체계를 완성하여 병서 『기효신서』 18권본을 편찬한다. 척계광은 북방에서 거보기영(車步騎營) 부대를 창설하고, 대다수 남병을 북방으로 배치하여 북방군의 훈련을 돕게 한다. 이를 계기로 남병의 무예가 북방에 대량 전파되었다. 왜구토벌과 북방 몽고족과의 전투에서 축적된 무예훈련법을 반영하여 『기효신서』 14권본을 편찬했다. 군영에서 무예는 엄격한 도제식 방식으로 전수되었으며, 장졸 모두에게 무예훈련은 필수 과제였다. 모든 무예훈련은 기본기와 날개 실전 기술인 단초식(單招式) 훈련을 위주로 하였으며, 반드시 겨루기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을 배양했다. 진법에 운용할 수 있는 직선위주의 실전무예를 중시하고 화법(花法)은 엄격히 금지하였다. 장단검용(長短兼用), 상하주전(上下周全)의 전면적인 기술과 임기응변의 실전 군사무예 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제어: 척계광, 남병, 무예

* 이 논문은 2022년 남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hao@nambu.ac.kr

I. 서론

척계광(1528~1588)은 명대(明代)에 왜구를 토벌하고 북방수비를 강화하는데 공을 세운 중국의 대표적인 군사가이다. 군비가 느슨해진 명 중엽에 진법과 무기체계, 무예훈련법을 실제 전장의 수요에 맞게 개편하여,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무예 혁신가이기도 하다. 초기 왜구토벌 작전에 실패한 위소군(衛所軍)¹⁾, 객병(客兵)²⁾ 등 기존 부대의 군기문란과 무능을 엄중하게 여기고, 차라리 당해 지역에서 새롭게 모병하고 직접 훈련시켜 강한 부대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 부대를 ‘남병(南兵)’ 혹은 ‘절강병(浙江兵)’ 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남부지역의 절강성 출신자를 주로 모병하였기 때문이다. 또는 척계광의 성을 따 ‘척가군(戚家軍)’ 이라고도 부른다. 본고에서는 고대문헌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남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남병무예는, 즉 척계광이 모병한 남병을 훈련시키는데 운용한 무예훈련법과 기술체계를 지칭한다.

군사가로서 척계광의 성공은 남병의 강한 전투력이 있어 가능했고, 남병의 강한 전투력은 척계광이 창시한 무예 훈련법과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방에서 성공적으로 왜구를 토벌하고 북방에서 몽골군을 평정한 전과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남병무예는 군사학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명대 중국 무예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무술사적 가치도 대단히 높다. 또한 임진왜란기 명나라 파병군의 일부였던 남병이 조선군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무예를 전수하여, 조선의 무예체계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었기 때문에 한국무예의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의 연구는 임진왜란 이

1) 중국 동남연해지역 등 군사 요충지에 설치한 군사기구로 명 초기에는 5600명 규모였으나 중엽 이후로 도망가는 군인이 증가하여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2) 왜구 정벌을 위해 중국 전역에서 징집한 향병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후의 무예 도입과정이나 조선에서 편찬된 무예서를 중심으로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척계광이 무예를 혁신하는 과정과 기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남병무예의 실체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남병무예의 형성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는 준비 단계로 척계광이 위소군, 객병을 이끌고 왜구토벌에 참전하고, 당순지(唐順之)³⁾, 유대유(俞大猷)⁴⁾ 등과 무예교류를 하며 질차탁마한 시기이다. 2단계는 절강성 의오(義烏)에서 4천 군사를 모병하여 원앙진(鴛鴦陣)과 장단병(長短兵) 무예를 훈련 시키고 기효신서(紀效新書)18권을 편찬하여 무예체계를 기본적으로 완성한 시기이다. 3단계는 북방 계진(薊鎮)에서 거보기영(車步騎營) 부대를 창설하고 남병무예를 전파한 시기와 척계광이 말년에 기효신서14권을 편찬한 시기이다.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진 무예체계 형성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무예의 기술적 특징은 군영에서의 전수방식, 훈련법, 기법적 특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위하여 먼저 『기효신서』 18권본⁵⁾, 『기효신서』 14권본⁶⁾, 『연병실기(練兵實紀)』 7)에서 무예 훈련법과 기술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하였고, 이어서 『적소보연보기편(戚少保年譜耨編)』⁸⁾을 통해 연대순으로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당순지의 『무편(武編)』과 유대유의 『검경(劍經)』 등 고문헌 자료와 연관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다수를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3) (1507~1560) 호는 형천(荊川)이고 강소성 常州 출신이다. 문과 수석으로 급제한 명대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군사가로 왜구 토벌의 영웅이다.

4) (1504~1588) 호는 허강(虛江)으로 복건성 泉州 출신이다. 명대 왜구토벌의 명장으로 군사가이자 무술가이다.

5) 마명달(馬明達) 점교(點校) 인민체육출판사 출간본(1988)

6) 범중의(范中義) 교석(校釋) 중화서국 출간본(2003)

7) 구심전(邱心田) 교석(校釋) 중화서국 출간본(2001)

8) 이극(李克) 점교(點校) 중화서국 출간본(2003)

II. 남병 무예의 체계 형성 과정

1. 1단계(1555 ~ 1558): 무예 교류 및 융합, 혁신

“적이 긴 칼을 들고 춤을 추는데 칼날이 번쩍이며 앞에 나타나니 병사들이 이미 기가 눌려 압도당했다. 아군의 단병기는 긴무기를 대적하기 어려워 빠르지 못하니 대적한 자 중에 몸이 두 동강이 나는 이가 많았다. 칼날이 예리하고 두 손을 사용하여 큰 힘을 쓰기 때문이다.”

“심지어 5-6명의 왜구가 수천 명의 관군을 쫓아 죽이는데, 한사람도 창을 돌려 반격하지 못했다.”⁹⁾

초기 왜구의 침략에 맞서 척계광이 직접 교전하며 경험한 내용의 진술로 당시 명군과 왜구와의 전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조충, 장도(長刀), 창으로 무장한 왜구는 무기의 예리함과 기세에서 명군을 훨씬 압도하고 있었다. 초기 전투에서는 동남 연해지역을 방위하던 위소군을 주력부대로 운용하였으나 훈련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도망가는 이들이 많아 실패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척계광은 이들을 새로 훈련시켜 급히 강군을 양성하고자 한다. 가정(嘉靖) 36년에 「연병의(練兵議)」 상소문을 올려 절강성 임(臨), 관(觀)의 의소군과 향병 삼천 명을 선발하여 훈련시켰으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2년간의 훈련을 통해 군대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실제 전투에서는 겁먹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다음 글을 통해 당시 병졸의 무예 수준과 그들을 새롭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전에 익히던 무예에 가리어, 스승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큰 일을 그르치는 이가 매우 많다. 익히던 기법이 앞뒤로 좌우로 돌며 춤추는 것으로 병기를 두 손으

9) 戚祚國(明). 戚少保年譜著編. 李克, 郝教蘇 點校(2003), 中華書局, 73

로 잡아들면 양끝의 길이가 한 척에 불과하다. 평소 마을에서 싸우면 이기니 스스로 무적이라 말한다. 비록 다른 스승이 정곡으로 가르쳐도 듣지 않는다. 사병을 가르치는 책임자는 반드시 일일이 토착민들이 익히고 좋아하는 기예를 파악하여, 편찮은 것은 허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훈련토록 하고, 전장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먼저 일일이 집착의 병폐를 설파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로 만든 무예의 이로움을 말하여, 그들이 전에 익힌 무예의 불리함을 알고 나의 무예의 이로움을 흠모하도록 기다린다. 그런 연후에 훈련을 감독한다.”¹⁰⁾

위의 내용은 당시 병졸이 기존에 익혔던 무예가 전장의 실전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무예에 매우 집착하여 오만하고 쉽게 새로운 무예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척계광은 이들이 도시의 시정잡배 출신들로 태생이 교활하여 개선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병폐의 심각성을 알고 척계광은 차라리 무예를 모르는 순박한 자를 선발하여 새롭게 훈련시키고자 한다. “병사의 선발조건으로 체격이나 무예, 힘, 영리함을 선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 네 가지 기준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담력을 주로 봐야하는데 첫째로 정신을 위주로 하여 사람을 뽑아야 한다. 영리하고 교활한 자를 가장 금기하고 차라리 시골의 우둔한 자를 써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위소군으로는 왜구를 소탕하지 못하고 중국 각지의 향병 부대를 징집한 소위 ‘객병’을 왜구 토벌작전에 징집하여 참전시킨다. 척계광도 객병을 지휘하여 전투에 참전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함을 한탄한다. “천하의 군대는 징병하는 것이 편리하다. 남으로 호광토병(湖廣土兵), 광서랑병(廣西狼兵), 사천묘병(四川苗兵), 소림승병(邵林僧兵)¹¹⁾을 징집하고, 북으로 산동창수(山東槍手), 하남모민(河南毛民), 전주와민(田州瓦民), 북변기병(北邊騎兵), 북평사수(北平射手) 등을 징집한다. 하지만 적이 쳐들어와 급히 격문을 띄우면 멀리서 멀리요,

10) 척계광(명). 『紀效新書』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中華書局, 126

11) 『萬寶全書』 등 명대의 문헌에서는 少林을 邵林, 邵陵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가까워도 수 천리니 도착하는데 일 년은 걸려 적은 배타고 떠나버린다.”¹²⁾ 원거리에서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이 외에 군기가 문란하여 낮에는 민가를 약탈하고 밤에는 부녀자를 강간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¹³⁾

위에서 서술한 내용대로 위소군과 객병의 전투력 부실로 척계광은 완전 새로운 군대의 창시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이렇게 탄생한 부대가 바로 남병이다.

또한, 이 시기 척계광은 당대의 명장인 당순지, 유대유와 연합으로 왜구 토벌작전에 참여한다. 당순지는 가정36년(1557년) 병부상서(兵部尙書)의 신분으로 절강성 지역 왜구 토벌작전에 참여하며 척계광과 교류했다. 당순지는 자신이 쓴 병서『무편』을 주어 척계광이 원앙진 진법을 고안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당순지가 창안한 원앙진은 5인을 기준으로 장창(長槍), 낭선(狼筈), 등패(藤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진법에서 단병(短兵)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여 12인으로 구성된 원앙진을 만든 것이다. 또한 당순지에게 장창을 배우고 그 내용을 『기효신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장창 외에도 무편의 권법, 낭선, 창 등과 기효신서의 내용이 유사한 점이 많아 척계광의 무예는 기본적으로 당순지의 것을 계승하여 만들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유대유와는 가정35년(1556년)에 용산(龍山)에서 연합하여 왜구를 크게 토벌한다. 유대유는 『검경』의 저자로 곤법에 정통하여 소림사 승려에게 곤법을 전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척계광도 그로부터 곤법을 전수받았으며 기효신서에 『검경』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척계광은 유대유의 곤법을 통해 단병무예의 정수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곤법이 모든 무기술의 기초이며, 단병(短兵)은 유대유의 법을 따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척계광은 30세 전후의 젊은 나이로 당순지, 유대유보다 20세 이상 어리고 관직도 낮았다. 척계광이 이들에게서 무예와 병법을 배웠을 것이라고 짐작할 만하다. 이들과의 무예교류는 척계광이 원앙

12) 戚祚國(明). 戚少保年譜著編. 李克, 郝教蘇 點校(2003), 中華書局, 41

13) 鄭若曾. 『籌海圖編』卷十一. 中華書局, 2007, 727

진법과 장단검용의 무예체계를 창시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하였다.

2. 2단계(1559 ~1566): 원양진과 혁신 무예의 운용과 검증

가정 38년(1559년) 척계광은 의오(義烏)에서 광부와 농민 4000명을 징집하여 원양진을 기본 전투대형으로 하는 군대를 조직한다. 왜구와의 보병 육박전에 유리하게 무기를 개량하고 귀, 눈, 손, 발, 심리와 진영에 관한 전면적인 훈련법을 창안하고 운용하여 강한 군대를 만들고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 39년(1560년)에 실용병법서인 『기효신서』 18권을 편찬한다. 이 책은 비교무예상벌, 장병단용설, 등배총설, 낭선총설, 단병장용설, 사법(射法), 권경첩요(拳經捷要) 등의 다양한 무예훈련의 원칙과 방법이 전부 망라되어 있어 남병무예의 교과서와도 같다.

가정 40년(1561년)에 왜구가 절강성 태주(台州)를 침범하는데, 이때 척계광이 직접 훈련시킨 남병을 이끌고 참전하여 왜구를 완전히 소탕하고 납치되거나 포로로 붙잡힌 중국인 만 여명을 구출한다. 이를 태주대첩이라 부르며 남병이 크게 명성을 떨치는 계기가 된다.

이후 왜구는 절강성에서 복건성으로, 복건성에서 다시 광둥으로 옮겨 다니며 약탈하다가 가정 44년(1565년)에 척계광 남병과 유대유가 이끄는 부대의 협공으로 섬멸된다.

이 시기 척계광이 직접 이끈 남병의 수는 왜구 토벌 작전의 막바지인 2차 복건성 전투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최소 1만 8천명이다.¹⁴⁾

척계광은 가정 34년에서 45년까지 12년 동안 중국 동남연해지역의 왜구를 완전히 소탕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단하게 남병무예의 전투력을 검증하며 군영 무예체계를 확립하였다.

14) 朱永濤(2017). 戚家軍將領群體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 論文, 21

3. 3단계(1567 ~1584): 북방 군영 전파 및 체계 완성

용경(隆慶) 2년(1568년)에 신기영(神機營) 부장(副將)에 임명되어 하북성 계진(薊鎭) 일대 북방군의 훈련과 수비를 맡게 된다. 척계광은 이곳에서도 지리적 환경과 적의 특성에 맞게 훈련법과 무기를 개량하여 혁신한다.

거병(車兵), 보병(步兵), 기병(騎兵)이 협동하여 전투하는 거보기영 부대를 조직한다. 이 때 새로운 부대의 훈련을 위해 전에 이끌던 절강성 남병 조총수 삼천 명을 북방으로 우선 배치하여 훈련을 돕게 한다. 이 외에도 척계광은 남병 살수 칠천 명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용경 3년에 삼천 명의 남병 살수를 배속 받아 북방군의 무예훈련을 돕도록 했다. 남병이 북방에 파병 복무한 전체시기를 보면, 그 기간에 참여한 남병은 대략 이만 천여 명으로 척계광이 절강성과 북건성에서 훈련시킨 군사의 전부다.¹⁵⁾ 척계광이 남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고 북방군의 무예 훈련과 전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만리장성의 망루 초소에 북방군과 남병을 근거리에서 배치하여 남병에게 수시로 무예를 배우고 정기적으로 평가 받도록 하였다.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싸우고 지키는 것이다. 싸우고 지키는 일의 실체는 치고 찌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어찌 무예 익히는 것을 경시하겠는가? 각자 당창도곤(鎗刀棍)의 무기를 가리지 않고 하나를 휴대하고 다니며, 밤에는 망루를 순찰하여 지키고, 낮에는 망루 가까운 곳에 함께 근무하는 남병과 함께 연습한다. 초소 대항으로 무예를 시험하여 상벌하고 순위를 보고한다.”¹⁶⁾

척계광은 사병들에게 훈련에 필요한 조항들을 문건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문건을 엮어 『연병실기』를 편찬한다.

북방에서도 남병부대에서 운용하였던 등패, 낭선, 장창, 당파 등의 무기체계를

15) 朱永濤(2017). 戚家軍將領群體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 論文, 23

16) 戚祚國(明). 戚少保年譜耆編. 李克, 郝教蘇 點校(2003), 中華書局, 330

접목하고 개량된 최신의 무기를 구축하여 훈련하였다. 몽고족 기병과의 전투에 맞게 아래의 내용처럼 무예를 개편하여 훈련하고 운용하였다.

“보졸은 수레아래서 출전한다. 첫 줄은 장도를 지니고 평소 훈련한 대로 땅에 엎드려 앞으로 간다. 멀어도 수레에서 오보 이내를 유지한다. 수레는 보졸에 맞춰서 천천히 나가며, 보병은 말의 발을 땀다. 두 번째 줄은 목봉으로 말에서 엎어진 적을 친다. 셋째 넷째 줄은 당파와 창으로 협공하여 찌른다.”¹⁷⁾

이러한 무예 훈련의 효과로 만력(萬曆) 3년(1575)에 몽고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북방 변방을 평정하였다.

척계광은 군영에서 무예훈련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무과제도를 혁신하여 장단 병기의 살수 무예를 더욱 장려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척계광이 무과의 혁신을 위해 상소한 내용의 일부이다.

“무생원을 준비하는 학생은 모두 분과하여 연습하고 공부하도록 하는데, 각기 활터를 만들어 무예를 익히도록 합니다. 활쏘기 외에도 단병기 세 가지 이상을 배워야 입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¹⁸⁾

“실기 시험은 1차 시험 첫날에 기사를 시험한다. 둘째 날에는 각종 말달리기를 시험한다. 이를 쉬고 보사를 시험하는데, 합격한 자는 다음 날 창(矛), 검 방패(盾), 극(戟), 곤방 등 기예를 각각 시험하여 많은 것에 능한 자를 상등으로 한다. 모든 무예가 숙달되었으면 활을 잘 쏘지 못하여도 뽑도록 한다. 겨루기는 먼저 혼자 동작을 연무하고 다음에 겨루기 한다. 무예는 합격하고 글을 모르면 3차 시험에 응시할 필요 없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¹⁹⁾

명 초기부터 무과제도는 기사(騎射)와 보사(步射)의 활쏘기 위주로 시행되었으나 만력(萬曆) 이후로 창, 도, 검, 극(戟), 권박(拳搏) 등 단병 무예가 시취과목으로 시행되었다.²⁰⁾ 실제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예 중심으로 개편된 것이다. 척계광

17) 戚祚國(明). 戚少保年譜著編. 李克, 郝教蘇 點校(2003), 中華書局, 208

18) 戚祚國(明). 戚少保年譜著編. 李克, 郝教蘇 點校(2003), 中華書局, 216

19) 戚祚國(明). 戚少保年譜著編. 李克, 郝教蘇 點校(2003), 中華書局, 217

20) 武術研究院編纂(1997). 中國武術史. 人民體育出版社, 239

의 상소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

만력 12년(1584년) 척계광은 『기효신서』 18권본과 『연병실기』를 기초로 하여 『기효신서』 14권본을 완성한다. 『기효신서』 14권본은 남방에서의 왜구토벌과 북방에서 몽고족과의 전투과정을 거치며, 모병에서 훈련까지 그가 경험하고 축적한 군사실무를 총망라한 병서이다. 무예훈련과 연관된 내용은 수족(手足)편 권3, 권4, 권5와 비교편 권6이 있다. 18권본과 비교하여 「권경첩요편」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척계광이 말년에 전장에서의 수요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남방무예는 척계광 일생의 무예교류와 전장에서의 실전과 검증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체계화 된 군사무예이다. 지리적 환경과 적의 특성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며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무예체계로 완성되었다.

Ⅲ. 남방무예의 특징

1. 도제식(徒弟式) 방식에 의한 엄격한 교습

척계광은 기효신서에 교사²¹⁾를 존경하라는 ‘尊教師’의 항목을 따로 서술할 정도로 군영에서 무예교사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습의 도는 반드시 먼저 스승께 예를 다해야 한다.” “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은 너의 사부님이다.”²²⁾라고 병사들에게 강조하였다. 무예교사의 지위를 올리고자 노력한 것은 그만큼 당시의 무예교사가 존경 받지 못하여 무예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입대 전 무예를 익혔던 자들 중에 자만하여 훈련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군법으로 처벌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무

21) 명대의 교사라는 명칭은 지금의 교사와는 다소 다른 의미이다. 명대의 교사는 주로 무술을 가르치는 선생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어, 지금의 사범, 코치와 비슷한 호칭이다.

22) 척계광(명). 『기효신서』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중화서국, 224

예교사의 지위와 권위가 매우 필요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기술과 비교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무예훈련의 특성상 더욱 교사의 지위를 보장하였다고 보여 진다.

“교사의 부류는 지위가 매우 낮으나 병졸 사이에서 사부로 존중한다. 병졸 중에 무예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자가 있는데, 무예를 모르는 자가 낮다. 밖에서 익히고 온 자들은 마음에 찬 것이 있으나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는 전에 익힌 것이 더 좋다고 믿는다. 스승의 지위가 서지 않으면 말을 믿지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고 배워도 연습하지 않으며 연습해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스승의 지위가 사라지면 가르쳐도 성과가 없다. 병졸 간에 사부의 예로서 존중하도록 하고 편의를 부여한다. 병사 중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바로 처벌하는데, 보고하여 군법으로 처리한다.”²³⁾

당시 교사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교사 자체의 자질 부족도 하나의 문제였다. 척계광은 이들을 대부분 혈기 왕성한 소인배라 여기고, “갓고 있는 무예를 보물처럼 감추고 제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가르치려하지 않는다. 또한 공양(땃가)을 요구할 때 값으로 시비를 삼는다.”²⁴⁾ 고 하였다. 다수의 무예교사가 매우 보수적이며 지나친 보상을 위해 군영에서의 무예교습이 순탄치 않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휘관에 해당하는 장령들의 무예훈련도 매우 강조하였다. 척계광은 지휘관 중에 직접 무예를 익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점을 지적하고 사병에 술선수범하여 무예를 익히도록 하였다. 무예는 군 전체의 생명과 전장의 안위가 달린 일로 장수가 2-3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예실력과 담력이 있어야 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휘관이 먼저 배우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창도하겠는가? 자신이 화법(花法)²⁵⁾과 실용법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찌 사졸이 익힌 무예의 수준을 분별

23) 척계광(명). 『기효신서』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중화서국, 124

24) 위와 같다.

하겠는가? 교사에 의지해 평가한다면 사람들이 불복할 것이다.”²⁶⁾

지휘관이 직접 무예를 익혀서 알아야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예교사에게 배우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지휘관이 화법과 실전법을 구분 못해 잘못된 무예훈련을 하여 전장에서 패배하는 일을 경계하였다.

“무기술을 연구하는 데는 나이가 없다. 기꺼이 (무예)교사를 막사로 부르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야 한다.”²⁷⁾

“각종 교사를 옆에 두고 매일 식사 후에 소일거리가 없으면 한 교사에게 한 가지를 익히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는다면 무예가 저절로 정통하게 된다.”²⁸⁾

이상의 내용처럼 남병에 속한 모든 장졸은 무예교사에게 무예를 배워 익혀야 했다. 남병부대에서 무예교사는 비록 지위는 낮았으나 극진한 예와 대우를 받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만큼 남병에서 무예훈련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심 과제였음을 것을 알 수 있다.

2. 기본기와 대련 위주의 실전 훈련

척계광은 당시 군영에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화법 무예가 만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장수(지휘관)가 여러 무예의 훈련법을 모른다면 어찌 여러 무예의 정법을 아는 안목을 갖겠는가? 반드시 화법이 섞이게 된다. 화법이 섞이면 정법(正法)에 어두워지고, 바로 바꾸기가 어려우니 그 관계가 어찌 작다할 수 있겠는가!”²⁹⁾ 전 군의 무예가 정법과 화법이 있는데 지휘관이 무예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자칫 쓸모없는 무예훈련으로 실전에서 패배하게 된다. 안목이 없으면 화려한 동작에 현혹되어서 화법을 정법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25) 동작이 화려하나 실전, 특히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예나 여러 동작을 연결해서 만든 투로와 같은 연습 방법을 일컫는다.

26) 척계광(명). 『練兵實紀』. 邱心田 校釋(2001), 중화서국, 186

27) 척계광(명). 『기효신서』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중화서국, 348

28) 척계광(명). 『練兵實紀』. 邱心田 校釋(2001), 중화서국, 186

29) 척계광(명). 『기효신서』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중화서국, 347

척계광의 “보기 좋으면 실용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이면 보기 좋지 않다. 지금은 실용적이지 못함을 잘 알 수 있다.”³⁰⁾는 말처럼 보는 것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이다. 척계광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화법 훈련을 금지하고 실전의 정법 무예만을 익히도록 감독하였다.

“훈련장에서 배우는 무예는 모두 전쟁터에서 실용적인 것이다. 전쟁터에서 쓸모없는 것은 연습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실용적이지 않은 병기는 너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터에서 실용적이지 않은 춤추는 동작들은(舞打) 너희로 하여금 배우게 하지 않는다.”³¹⁾

척계광이 말하는 화법과 정법은 전쟁터에서 진을 펼치고 대적하여 싸울 때 효과적으로 발휘가 가능한가로 구분하는 것이다.

“회전하고 뛰어오르며 하는 것들은 모두 화법으로 무익하다. 도리어 배워서 익숙해지면 가장 심각하게 해롭다. 당파와 곧법이 화법이 매우 많은데 버려도 끝이 없다.”

회전하고 도약하거나 여러 동작을 연결하여 혼자 연무하는 방식의 투로(套路)는 화법으로 구분하여 금기하였다. 투로는 중국무술 특유의 운동법으로 화려한 동작의 반면에 실전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운동방식이다. 이러한 동작에 익숙해지면 다시 교정하기가 어려워 실전과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진다. 당시 민간 유파의 무술이 군영에 전파되면서 정제되지 못하고 혼재된 상황이 종종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척계광은 실전에 유효한 기본기 훈련과 겨루기 중심으로 무예체계를 개편하고 훈련하였다.

척계광은 전국 각지의 저명한 무예교사와 교류하고, 기술들을 융합하여 실전에 부합한 내용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산동, 하남 각처의 교사들이 서로 전수한 양가창법(楊家槍法)의 음양허실의 이치는 서로 같다...지금 그들의 나법(拏法)³²⁾을 쓰고 나의 진보(進步)를 더했다.

30) 戚祚國(明). 戚少保年譜者編. 李克, 郝教蘇 點校(2003), 中華書局, 4

31) 척계광(명). 『기효신서』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中華書局, 225

그 중에 가장 오묘한 것은 습득한 후에 한번 돌리고 한번 찌르는 것이, 둥근 돌이 높은 산에서 구르며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 최근에 이 방법으로 장창을 가르치니 효과가 명확하다. 심히 오묘하다!”³³⁾

양가창법의 기본기술에 자신의 빠른 보법을 응용해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 훈련하니 효과가 매우 빠르다고 감탄한 내용이다.

그는 병사를 가르치는 데는 봉(封), 폐(閉), 착(捉), 나(拏), 상란(上攔), 하란(下攔) 여섯 가지 창법, 육창(六槍)을 사용하였고, 단지 이것으로도 쓰임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창은 혼자 연습하는 방법으로 창두로 원 그리기는 손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진퇴는 보법(步法)과 신법(身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창법의 기본기에 해당하는 훈련으로 육창의 기법을 사용하여 연습할 수 있다. 소위 기본공법과 날개 기술인 단초식(單招式) 훈련법인 것이다. 실전에 필요한 힘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다. 척계광은 이를 제외하고 소위 투로(單舞)를 하는 것은 화법으로 배우면 아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내용을 통해 볼 때, 기효신서에서 소개한 24세 창법은 투로와 같은 연결 동작이 아닌 단초식 방식으로 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반드시 두 사람이 육창의 기법으로 대련하도록 했다. 이러한 척계광의 훈련법은 조선의 무에서 무예도보통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24창법과 32권법은 임기응변하여 백가지로 변할 수 있다. 비록 몇 가지 세가 이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세 마다 서로 이어지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 권법을 말하자면 척계광의 보에는 반드시 두 명씩 겨루도록 하였다.”³⁴⁾

척계광은 혼자 연습하는 무(舞)와 겨루기 연습인 대(對),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배우지 않은 자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투로와 겨루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간혹 무술인 사이에서도 투로 훈련이 실전에 유용할 수

32) 창 의 기본기 중에 창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상대의 무기를 방어하는 동작이다.

33) 척계광(명). 『기효신서』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중화서국, 99

34) 이덕무, 박제가 撰. 『무예도보통지』 권4, 권법 5. 동문선 영인본(1998)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에서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 특전사에서 전장무술로 창시된 특공무술을 들 수 있다. 군내 특공무술 교육의 문제점은 기술체제의 문제보다는 품새 및 시범 공연 위주의 훈련과 실전대련의 부재다.³⁵⁾ 필자도 90년대 중반에 육군 최전방 수색대에서 특공무술 교관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였지만, 대부분의 병사와 간부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다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수전에서의 실전을 위해 창시된 무술이 전혀 실전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필자가 당시 우수 4단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휘관이 무예를 익히지 않으면 사열을 하고도 화법과 정법을 제대로 시찰하지 못한다.³⁶⁾는 척계광의 경고를 주목할 만하다.

척계광은 이러한 운동형식에 따라 화법과 정법을 정확하게 구분하였고 훈련과 평가에 적용하였다. 모든 병기와 권법은 겨루기를 통해 실전의 기술을 숙달하도록 훈련하였다. 예를 들면 당파는 장창과 대련하고, 왜도는 목도로 서로 대련하고, 장창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련하도록 하였다. 목봉은 투로 없이 두 사람이 대타(對打)하도록 하였다.

무예의 평가는 보통 먼저 혼자서 동작을 연무하고 다음 겨루기를 하여 등급을 나누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등목패(藤木牌). 두 사람이 한 줄로 선다. 먼저 연무하는데 몸을 잘 막고 동작이 세밀하고 민첩하면 합격이다. 연무 이후에 장창수와 대련한다. 연무는 서투나 겨루기가 숙달된 자는 중등이고, 연무는 숙달했으나 겨루기가 서툰 자는 하등이다.”³⁷⁾

여기서 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연무보다는 겨루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전이 최우선시 되는 군영에서 매우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35) namu.wiki/w/특공무술

36) 척계광(명). 『기효신서』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중화서국, 376

37) 척계광(명). 『練兵實紀』. 邱心田 校釋(2001), 중화서국, 101

3. 장단겸용(長短兼用), 상하주전(上下周全)의 기법

척계광은 무예체계를 새로이 만들면서 전면적인 기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당시 민간의 여러 무술유파들은 각기 장점은 있지만 기술이 한쪽에 치우친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무예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무기술은 길게도 짧게도 사용할 수 있는 장단겸용의 기법을, 권법은 상체와 하체의 기술을 두루 갖춘 상하주전의 기법체계를 추구한 것이다.

활, 화기, 장창을 장병기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장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일단 척계광은 사거리, 즉 내가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용 거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상대가 신통한 기술이 있어도 나보다 일촌이 짧으면 역시 쓸모없는 것이다. ‘일촌이 길면, 일촌이 강한 것이다.(一寸長, 一寸強)’ 이 여섯 글자가 비결이다.”³⁸⁾ 하지만 장창의 가용 거리가 길다 하여도 상대가 나의 공격을 방어하고 치고 들어온다면 바로 위기에 노출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빠른 보법과 손기술을 강조하였다.

“교전 중에 찔렸으나 급소를 맞추지 못하고 상대의 단병이 치고 들어올 때 제대로 빠지지 못하면 맨손이나 마찬가지다. 불발됐을 때 여유가 있으면 보법으로 물러서고, 급하면 손기술로 창자루를 줄이면 된다. 내 손안의 창을 일척 길이로 줄여도 상대를 찌를 수 있으니 단병의 쓰임과 같다.”

이처럼 교전 중에 장창을 길게도 짧게도 변화하며 운용하는 기술을 장병단용이라고 한다. 공방이 변화무쌍한 실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사거리가 긴 활 같은 경우에도 비록 활의 사거리가 백 보이지만 오십 보에서도 발사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장거리 무기를 짧게 운용하는 장병단용(長兵短用)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기존 사법(射法)이 먼 거리의 적을 잡는 원사(遠射)에 치우친 반면에, 가까이 있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근사(近射)사법 훈련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이다.

38) 척계광(명). 『기효신서』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중화서국, 48

위의 무기를 제외한 다른 병기는 대부분 단병으로 분류하였다. 등패(藤牌), 요도(腰刀), 장도(長刀), 언월도(偃月刀), 파(鈚), 곤(棍), 구겸(鈎鎌), 편(鞭), 간(簡), 과(槓), 추(錘)는 모두 단병이다. 당시 실전성이 떨어지고 동작만 화려한 단병 무예를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파(鈚), 곤(棍), 대도(大刀) 모두 자루 가운데를 잡는다. 손에서 끝까지 두 척 길어도 안 되고, 또 양쪽으로 거꾸로 사용하고, 몸을 중횡으로 감아 쓴다. 이는 떠돌이 교사가 혼자 싸우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³⁹⁾

소위 봉 돌리기와 같은 화려한 기술을 지적한 것이다. 보기에는 화려하나 실전에는 쓸모없는 기술에 지나지 않아 군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다.

단병의 사거리가 짧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을 공격할 때 병기자루의 끝을 잡고 팔을 길게 뻗어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하는 수법과 보법을 강조하였다.

“손은 자루 끝을 잡고 일 촌도 남기지 않으면 7-8척 길이를 확보할 수 있다. 팔다리를 하나로 나아가면 한 장의 거리는 된다.”

한 장단검용의 기술은 하나의 무기술 뿐 아니라 원앙진에서 다른 병기와 조화를 이뤄 운용하는 전술적 개념도 있다. 예를 들면 “등패, 요도는 단병 중의 단병으로 반드시 표창을 쓰고, 낭선에 의지해 운용하는데, 바로 단병장용의 방법이다.” 장창도 다른 단병기와 같이 운용하여 단점을 보완하는데, 이는 장병단용의 방법인 것이다.

척계광은 권법은 전장에서 크게 쓸모는 없지만 각종 무기술을 익히기 위한 무예 입문의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했다. 당시에 뛰어난 여러 유파의 권법이 있었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기술에 국한되어 있어 이러한 기술의 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권법은 전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유파의 기술들을 융합할 수 있었다.

39) 척계광(명). 『기효신서』 14권본. 范中義 校釋(2001), 중화서국, 75

“비록 각각의 장점은 있지만, 위(기술)가 있으면 아래(기술)가 없고 아래가 있으면 위가 없이 전해진다. 다른 사람을 이긴다 하여도, 이는 한쪽에 치우친 것에 불과하다. 만약 여러 가지 권법을 아울러 익힌다면..... 위 아래(기술)를 두루 갖추다 이길 수 있다.” 40)

당시에 송태조32세장권(長拳), 후권(猴拳), 와권(凹拳), 온가권(溫家拳), 파자권(巴子拳), 면장단타(綿張短打) 등의 여러 유명한 권법의 유파가 있었지만, 각기 다른 권법의 장점 기술을 선별하고 융합해서 발차기, 손기술, 씨름 등 전면적인 기술 체계의 권법을 탄생시켰다. 지금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중 종합격투기를 창시한 셈이다.

“고로 그러한 권법의 뛰어난 것 32세를 골랐다. 세마다 서로 이어지어 적을 만나면 제압하여 이긴다. 변화가 끝이 없고 미묘함을 예측하기 어렵다.” 41)

척계광은 실전이라는 명확한 목표에 맞추어 상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추구하였다. 상대보다 유리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병과 장타를 원칙으로 하되 근접전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단병과 단타의 기법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체계를 구축하였다.

IV. 결론

명나라 중엽에 중국 동남연해지역을 침략한 왜구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척계광은 새로운 진법과 무예체계를 창시한다. 당시 왜구는 조총과 창, 도검이 뛰어난 소규모 육박전에 강하여, 전투 초기에는 명군이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특히 초기 참전 부대인 위소군, 객병은 군기가 문란하고 무예와 담력이 열등하여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40) 척계광(명). 『기효신서』 18권본. 馬明達 點校(1988), 인민체육출판사, 308

41) 척계광(명). 『기효신서』 18권본. 馬明達 點校(1988), 인민체육출판사, 307

척계광은 가정36년(1557년) 왜구 토벌과정에서 당대의 명장이었던 당순지, 유대유와 연합작전 및 교류를 통해 병법과 무예의 식견을 넓혔다. 당순지로부터는 『무편』을 받아 원앙진법을 고안하고 장창을 중심으로 장병기예를 습득했다. 한편 유대유로부터는 『검경』을 받아 곤법을 중심으로 단병기예를 습득했다. 이들과의 무예 교류를 통해 장병기와 단병기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장단검용의 기법체계를 완성했다.

가정 38년(1559년)에 절강성 의오에서 농민과 광부를 대상으로 4천명을 모병하여 부대를 창설했다. 원앙진법과 장단병기 등의 무예훈련법을 창안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왜구를 성공적으로 토벌했다. 이러한 훈련과 전투 경험을 토대로 권법과 장병, 단병 등의 무예를 수록하여 병서 『기효신서』 18권본을 편찬했다.

융경 2년(1568년)에는 하북성 계진(薊鎮) 일대 북방군의 훈련과 수비 임무를 맡게 된다. 척계광은 이곳에서도 지리적 환경과 적의 특성에 맞게 기병, 보병, 기병이 연합 기동하는 거보기영 부대를 창설한다. 이 때 대다수 남병을 북방으로 배치하여 북방군의 훈련을 돕게 하는데, 남병무예를 기병 전투에 맞게 응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병의 무예가 북방에 대량 전파되었다.

만력 12년(1584년)에는 왜구토벌에 사용한 원앙진법과 북방 몽고족과의 전투에서 운용한 무예훈련법을 반영하여 『기효신서』 14권본을 수정 편찬했다.

남병 군영에서 무예의 교습은 민간무예의 화법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사도제의 방식으로 전수되었다. 장졸 모두에게 무예훈련은 필수적인 것으로 남병 전투력의 핵심과제였다.

모든 무예훈련은 기본기와 날개 실전기술인 단초식 훈련을 위주로 하였으며, 반드시 겨루기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을 배양했다. 전장에서 진법에 운용할 수 있는 직선위주의 빠른 보병과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실전무예를 중시하고 회전하거나 도약하는 화려한 동작의 화법은 엄격히 금지하였다.

장병기와 장타를 중심으로 하고 장병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단병기와 단타의 기술을 운용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장병기와 단병기의 장단점

을 상호 보완하는 장단검용, 상하주전의 원칙은 기법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였다.

참고문헌

- 이덕무, 박제가 撰. 『무예도보통지』 권4, 권법 5. 동문선 영인본(1998).
- 정해은(2004).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군사**, 51, 151-183.
- 이정일(2020). 임진왜란 전반기 조선의 남병(南兵) 인식과 활용 방안. **한국사연구**, 189, 79-110.
- 노동호(2022). 중국무술 고대 문헌자료 연구. **무예연구**, 16(1), 1-16.
- 김종윤(2017). **무예도보통지의 권법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戚繼光(明). 『紀效新書』18卷本. 馬明達 點校(1988), 人民體育出版社.
- 戚繼光(明). 『練兵實紀』. 邱心田 校釋(2001), 中華書局.
- 戚繼光(明). 『紀效新書』14卷本. 范中義 校釋(2001), 中華書局.
- 戚祚國(明). 『戚少保年譜者編』. 李克, 郝教蘇 點校(2003), 中華書局.
- 鄭若曾(明). 『籌海圖編』卷11. 中華書局, 2007.
- 武術研究院編纂(1997). 中國武術史. 人民體育出版社.
- 劉旭東(2015). 從戚繼光『紀效新書』看中國武術和軍事技術的結合. **武術科學**, 12(5)
- 蔡藝(2020). 萬曆援朝戰爭與浙兵武藝在朝鮮半島的傳播. **成都體育學院學報**, 46(4).
- 朱永濤(2017). 戚家軍將領群體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ABSTRACT

A Study on the Southern Troops(南兵) Martial Arts by Qi Ji-Guang(戚繼光)

Noh, Tong-Ho(Nambu Univ.)

This study attempted to fully investigate the reality of male military martial arts by analyzing the proces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QiJiGuang's martial arts innovation. In the course of the battle against the Japanese pirates, Qi Ji-Guang received "Wubian(武編)" from Tang Shun-Zhi, devised Wonangjin(鴛鴦陣), and learned long weapon martial arts around long spears, and received "Jianjing(劍經)" from Yu Da-You(俞大猷) to learn short weapon martial arts around gonbeop(棍法). Based on martial arts training and combat experience with Japanese pirates, 18 volumes of the military book "Jixiaoxinshu(紀效新書)" are compiled, containing martial arts such as martial arts, long weapons, and short weapons. Qi Ji-Guang establishes a new unit in the north, and deploys most of the southern troops soldiers to the north to help train the Northern Army. As a result, the martial arts of the southern troops were widely spread to the north. The 14 volume of the "Kihyo Sinseo" is compiled by reflecting the martial arts training method accumulated in the battle between the Japanese pirates and the northern Mongolians. In the military camp, martial arts were passed down in a strict apprenticeship style, and martial arts training was an essential task for both officers and soldiers. All martial arts training focused on basic skills and individual skill training, and must improve practical skills through fighting training. Practical martial arts centered on fast walking and techniques of straight lines that can be used in the battlefield were emphasized, and technical practice without practical skills was strictly prohibited. Under the principle of technology that allows long and short use of weapons and uses upper and lower bodies, military martial arts with a comprehensive technical system was created.

Key words: Qi Ji- Guang, The southern troops, Martial arts

논문투고일 : 2022.09.27.
심 사 일 : 2022.10.21.
심사완료일 : 2022.11.19.